

[ 종합 ]

# “문화수도·J프로젝트 연계추진”

### 이영렬 문화중심도시기획단 팀장 밝혀

## “아시아권 방문객 유인 시너지 효과”

광주의 미래를 결정할 국책사업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전남의 최대 개발사업인 J프로젝트(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사업)와 연계 추진된다.

이는 광주와 전남의 사활이 걸린 이들 사업이 입안단계에서부터 함께 추진됨으로써 J 프로젝트는 아시아권 관광·레저 인구를 아시아 문화중심도시사업으로 유인하고,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사업은 J프로젝트 현지에 아시아 각국의 방문객 수를 늘려도록 돕는다는 것을 말한다.

지난 22일 조선대 문화법정책 연구소 개소 기념 ‘21세기 문화법 정책의

쟁점과 과제’ 세미나 제 1세션 ‘창의 도시, 문화중심도시 광주’ 주제발표에 나선 문화관광부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추진기획단 이영렬 정책기획팀장은 토론에서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사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J프로젝트와 연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전남대 류재한 교수(불어불문학과)의 지적에 대해 “종합계획에 반드시 두 사업간 연계방안을 포함시키겠다”고 답했다.

이 팀장은 “J프로젝트는 해당지역인 영암·해남지역 뿐만 아니라 광주와 긴밀히 연계해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사업을 더욱 중요하게 할 수 있는

최적의 사업이다”면서 “아시아 문화중심도시의 주요 사업이 아시아 각국간의 교류와 소통인 만큼 J프로젝트를 통해 한국 서남부에 몰려오는 아시아 각국인들을 광주로 유인하는 것이 문화중심도시의 성패를 크게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미나에서는 이를 위해 향후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종합계획과 연차별 실시계획에 J프로젝트 협조문제를 포함시킬 것과 정부부처간 협력, 광주시와 전남도간의 협력문제를 구체화 할 것 등이 거론됐다.

한편 조선대 문화법정책 연구소(소장 서순복 법대교수)는 조선대 개교 60주년을 맞아 ‘문화법’분야를 특성화해 광주문화수도 조성사업 등 지역현황을 뒤바뀔 한다는 취지로 개소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조선대 법정책 연구소 개소 기념 ‘창의·문화도시 광주’ 세미나에서 이영렬 팀장(오른쪽 두번째)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고경석기자 ksgo@kwangju.co.kr

## 광주시 ‘금형산업전’ 열린다

### 공작기계·성형기기·제어계측기기 등 전시

#### 27~30일 DJ센터

광주시가 금형산업을 지역발전의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사)광주금형산업진흥회, 한국산업마케팅연구원과 함께 오는 27~30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06 광주국제기계·금형·자동화 산업전 (GIMMA 2006)’을 개최한다.

GIMMA 2006은 크게 ▲공작기계·일반산업기계, 몰류·포장기계 등 기계분야 ▲금형가공 및 성형기기, 절삭기계, 부품·소재 등 금형분야 ▲자동전용기, 유공압, 제어계측기기, CAD·CAM 등 공장자동화분야로 나뉘어 전시

된다. 15개국 150여 관련업체가 참여해 첨단기술과 정보를 선보이게 되며 광주금형산업진흥회와 바이어교류 MOU를 체결한 북미 지역 금형바이어를 비롯해 일본·독일·터키·말레이시아·핀란드 등 10여개 국가 100여명의 바이어가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캐나다 지역특화대학인 퀘벡대학교와 광주지역 대학관련학과 전시회 기간동안 글로벌 금형인력 양성방안을 협의하게 된다.

부대행사로 수출구매상담회, 금형포럼, 기계심포지엄, 신기술·신제품발표회 등이 마련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부서진 ‘獨 자존심’ 지난 22일(현지시간) 시험운행 중 보수차량과 충돌한 독일의 자기부상열차 트란스라피트의 지붕이 심하게 파손된 채 하늘을 향해 열려져 있다. /연합뉴스

## ‘함평 집단학살’ 등 5건 의혹 품다

### 진실화해추진, 조사개시 결정

6·25전쟁을 전후한 집단학살 사건 등 전남지역에서 발생한 역사적 집단학살 사건과 의혹 사건에 대한 조사 활동이 본격화 된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전남지역에서 접수된 진실규명 신청 사건은 집단학살 사건 1천608건을 비롯, 인권침해 및 확정판결 사건 26건, 적대세력에 의한 피해 사건 126건, 항일독립운동 사건 4건 등 모두 1천764건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가운데 함평 11사단 사건 등 집단학살 사건 4건, 인권침해 관련 사건 1건 등에 대해 조

사개시 결정을 내렸다.

‘함평 11사단 사건’은 전남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집단학살 사건으로, 1950년 12월 6일부터 이듬해 1월 14일 사이에 불갑산 지역 빨치산 토벌과정에서 국군 11사단 20여대 5중대에 의해 함평 월야·해보·나산면 인근 마을의 거주 1천454호가 소실되고 민간인 524명이 집단 희생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요 접수 사건은 집단학살 관련 접수 사건으로 ‘여순사건’, ‘국민보도연맹 사건’, ‘나주부대 사건’ 등이 있고 인권침해 관련 신청 사건은 ‘진도 가족 간첩단 의혹 사건’, ‘김산태 장관 구명진정 사건’ 등이다. /박지경기자 unipark@kwangju.co.kr

### “목포·나주 등 국립병원

### 환경호르몬 위험 제품 사용”

국립 목포병원과 국립 나주병원 등 전국 대부분의 국립병원들이 환경호르몬이 포함된 PVC제품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립의료원 등 9개 지방 국립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다수 국립병원들이 환경호르몬 노출 위험이 있는 PVC 제질의 의료용품을 사용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특히 수액세트, 연결관, 소변주머니의 경우, 9개 국립병원 전부 DEHP가 포함된 PVC 용품만을 100%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 가운데 국립 목포병원은 모든 수액백이 PVC제질로 조사대상 병원 중 사용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 나주병원은 수액백의 25.9%를 PVC제품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수액세트는 모두 PVC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성인 서투른 젓가락질

### “군대 포크숟가락 때문”

### 복학생 97명 실태조사

군부대에서 사용되는 포크 숟가락(앞부분이 포크 형태인 숟가락)이 성인들의 젓가락질 능력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올바른 젓가락문화’를 만드는 사람들(대표 김필수 대림대 교수)에 따르면 최근 군에서 제대한 복학생 97명을 대상으로 군부대 젓가락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부대생활 중 늘 젓가락을 사용했다는 비율은 고작 35%(34명)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모두 포크숟가락을 사용했다고 응답했다.

이로 인해 올바르게 젓가락질을 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고작 59%(57명)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전혀 사용하지 못하거나(5명) 불량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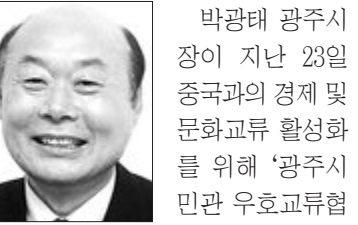
### 獨 자기부상열차 충돌

### 방문객 등 25명 숨져

독일 북서부의 라네에서 지난 22일(현지시간) 자기부상 열차인 트란스라피트가 고속 시험 주행중 보수차량과 충돌해 25명이 숨졌다.

이 열차엔 시험운행 시절 방문객을 포함해 29명이 타고 있었고 철로 위에 2명의 근로자가 있었다. /연합뉴스

### 박광태광주시장 중국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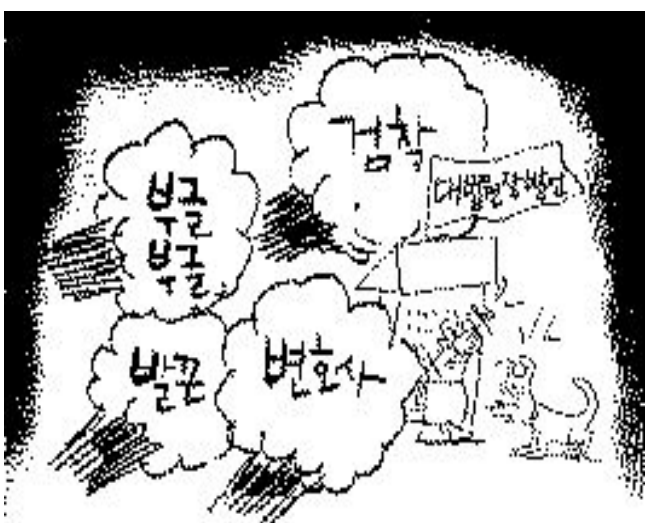


박광태 광주시장이 지난 23일 중국과의 경제 및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해 ‘광주시 민간 우호교류협력단’을 이끌고 7

박8일간의 일정으로 중국 방문에 나섰다. 박 시장 일행은 올해로 자매결연 10년째를 맞는 중국 광저우(廣州)시와 기념행사를 추진하고, 엔타이(烟台)시와의 ‘우호교류협력의향서’ 체결에 이어, 선양(沈陽)·단둥(丹東)시와의 경제 및 관광 분야에 대한 협의를 법일 예정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빛의만평

- 김중두



이래서 짓는 게 힘든거구나

## 쌀 직불금 내달 지금

농림부는 쌀 소득보전직불제에 의한 올해 고정형 직불금을 오는 10월 중 지급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쌀 소득보전 직불제는 지난해 추곡수매제를 폐지하면서 농가 소득보전을 위해 도입한 제도로, 정부가 고시한 목표가와 수확기 산지쌀값의 85%를 고정형과 변동형 보조금 형태로 지급하게 된다.

올해 고정형 직불금은 대상농지 1ha당 농업진흥지역안은 74만6천원, 진흥지역안은 59만7천원으로 작년에 비해 각각 16.5%씩 인상됐다. 대신, 수확기 쌀값이 확정된 이후인 내년 3월 지급되는 변동형 직불금은 고정형의 인상폭만큼 줄어들게 된다.

올해 신청 농가인원은 105만명으로 작년부터 1만6천명 늘고 신청 농지면적은 102만5천ha로 1만8천ha 증가했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광고접수안내
구인·구직·운전·모집·초빙·영양·도입·사실·매일·부동산·대매·임대·전세·분양
☎ 062-227-9600
FAX: 227-9500

건물임대
1층 225평
2층 225평
3층 225평
4층 135평
☎ 017-620-2311
010-2255-2600

순천한고을신용협동조합
채권조사의 특별기일 공고
사 건 2003하합18 파산선고
파 산 자 순천한고을신용협동조합
순천시 풍덕동 1260-5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은 채권조사의 일반기일 종료 후에 신고된 파산채권조사의 특별기일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으므로 구 파산법 제21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음-
가. 채권조사기일 : 2006. 10. 9. 16:00
나. 채권조사장소 : 광주지방법원 제401호 법정
2006년 9월 21일
광주지방법원제10민사부
재판장 판사 김 재 영
판사 강 주 현
판사 김 성 출

매일밤 8시부터 쏠! 쏠! 쏠! 애들은가라!!
이 용
9월 28, 29일
김범룡
10월 11, 12일
부킹천국 100%
정통 성인나이트 만을 고집하는
광주 상무나이트
(상무지구 롯데마트 옆)

공무원
\* 행정·사무·교정직
\* 검찰·사회복지·교육행정
정통 공무원 강좌
정규이론반·문제풀이반
40년 전국최고의 전통
노량진·광주·울산·출강
청강후 등록(강의만점)
www.Chonnamgosi.co.kr
전남고시학원
전남여고맞은편
광주동부서취
☎ (062)222-5105